

DJ정신 계승... '2021 김대중평화회의' 개막

목포서 평화·민주·인권 주제 국제학술회의 진행 2개 세션·라운드테이블...세계적 석학 발표·토론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민주·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국제행사가 전남에서 처음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김대중평화센터는 27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21 김대중평화회의의 개최식을 갖고 28일까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와 영상을 보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셨던 길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평화의 길이 돼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이어져 '김대중평화회의'라는 소중한 결실을 만났다"며 "김대중평화회의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탄탄하게 다져주길 기원한다"고 첫 회의의 시작을 축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대중평화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좋은 열매를 맺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양심에 근본

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되새겼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대동(大同)을 추구해야 한다"며 화해와 공존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 기조연설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민주·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평화회의의 첫날인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사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전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회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김성재·임동원·김명자·남궁진 전 장관, 김옥주 전 국회의원,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해 평화회의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열린 2개 세션과 1개 라운드테이블에서 박명규 서울대 교수, 임혁배 고려대 명예교수,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27일 오전 목포시 삼학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회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성재 조직위원장, 김종식 목포시장 등 내빈들이 평화의 비둘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평화와 화해의 세계 지도자, 미얀마와 아프리카니스탄'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세션에 참가한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의 장녀인 제나니 노시츠웨 들라미니 한국국제 남아공 대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

을 줄여주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라며 "지구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둘러보고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운드테이블 1에 참가한 조모야 한국

미얀마연대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집념과 신뢰는 매우 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지지를 미얀마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잊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연대가 있기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는다"며 "미얀마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길 기

다리면서 끝까지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김대중 평화회의의 현장 참여는 제한하지만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인 '옴뎀전남튜브', 김대중평화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회식과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자치경찰 지역 맞춤형 정책 자문단 가동

분과별 30명 위촉...도민 다양한 의견 수렴해 정책 제안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며 각계각층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정책자문단장은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주요 시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날 열린 첫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순관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가 '자치경찰 100일의 평가와 주민주권의 실현방안'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경찰청의 주민 지향적 정책 수립과 집행 ▲자치경찰위원회의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유숙영 전남도자치경찰위원, 김계국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김은숙

목포YWCA 사무총장, 권재영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전남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은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시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여수광양항, 亞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도, 내일 순천대서 산업 지원 강화 등 학술대회

전남도가 여수광양항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 아시아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전남도는 29일 오후 1시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사)국제이네비해양경제학회 주관으로 광양시, 전남테크노파크,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천대학교와 함께 여수광양항의 산업 지원 기능 강화, 스마트화, 관광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IST Port 활성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IST 프로젝트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여수광양항의 발전 방향과 미래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IST 항만과 과제', '여수광양항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다룬다. 학술대회 진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주제발표 세션별 사회자는 1세션 김현덕 순천대학교 교수, 2세션 이태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다.

세션1에선 이태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여수광양항 산업중핵항만의 의미와 과제', 박호 군산대학교 교수가 '여수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제고 방안', 윤경준 배재대학교 교수가 '여수광양항, 해양관광항만으로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제안한다.

세션2에선 최경훈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여수광양항 선박 입출항 데이터 기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연구', 선화 순천대학교 박사가 '여수광양항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김현덕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는 김길용 전남도의원, 최성희 전남도 항만물류팀장, 정기철 여수광양항만공사 실장, 장민석 광양시 철강항만과장, 김경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협의회장, 함형래 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장 등이 나서 열린 토

론을 펼칠 예정이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를 확충해 산업지원 및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겠다"며 "국가산업의 활성화, 물동량 창출 등으로 여수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은 27일 "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총 14개 분야 450여명이다. 아틀드리 90명, 희망나래 300명, 특별지정 60여명을 선발해 1인당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총 4억8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김재정기자

靑사회통합비서관에 영암 출신 김영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영암 출신의 김영문(53·사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 비서관은 광주 서강고, 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

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으로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시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사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비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피스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구인광고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 나이 제한 없음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062) 522-2000